


| | | | | |
|--|-----------------------|----------------|-----|------------------------------|
|  보건복지부 | 보 도 참 고 자 료 | | | |
| 배 포 일 | 2020. 8. 9. / (총 11매) | | | |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 팀 장 담 당 자 | 박 은 정 김 우 람 | 전 화 | 044-202-1711 044-202-1713 |
| 중앙사고수습본부 심리지원팀 | 팀 장 담 당 자 | 홍 정 익 구 재 관 | | 044-202-2860 044-202-286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환자 발생동향,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환자 발생동향,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침수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방역에 신경쓰기 어려운 틈을 타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최근 교회 2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과거와 같은 유형이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종교행사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단체식사를 피하는 등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7월 26일(일)부터 8월 8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명으로 이전 2주간(7.12.~7.25.)의 19.9명에 비해 7.8명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목표치인 80%를 넘겼으며,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8.5%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개척교회와 식당, 카페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 7월 12일 ~ 7월 25일 | | 7월 26일 ~ 8월 8일 |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9.9명 | | 12.1명 |
| 수도권 | 15.4명 | | 10.2명 |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31.4명 | ⇒ | 21.4명 |
|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 10건 | | 6건 |
| 감염 경로 불명 비율 | 6.4% (46/719) | | 8.5% (40/470)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 80% 미만 | | 80% 초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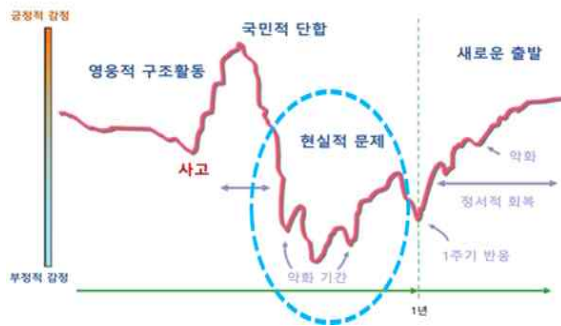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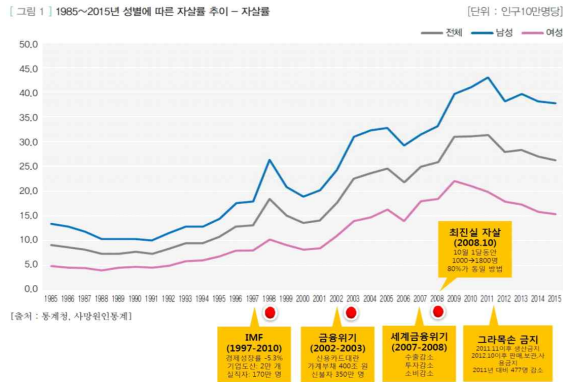
- 방역강화 대상국가(6개국)를 지정하는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 결과, 최근 2주간 해외유입 환자는 일 평균 21.4명으로 그 직전 2주간(7.12.~7.25.)의 31.4명에 비해 10명이 줄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 특히,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의 PCR 음성 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된 7월 13일 이후 일 평균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 일 평균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 (7.1.~7.12.) 21명 → (7.13.~7.19.) 16명 → (7.20.~8.6.) 5명

2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점검하였다.
- * 공공언어 순화정책에 따라 ‘코로나 블루’를 ‘코로나 우울’로, ‘힐링’을 ‘치유’로 변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으로 불안감과 우울 증가, 그로 인한 자살 증가 우려 등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 확산되고 있다. 【붙임1 참조】
- 특히, IMF(‘97), 금융위기(‘07)와 같은 중대한 사회적 사건 이후 자살률이 증가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대상·단계별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난 이후 집단의 정서적 대응
(국회 '코로나블루 해결을 위한 치유방안 세미나', '20.6.29)



1985~2015 성별에 따른 자살률 추이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 먼저, 대국민 희망메시지 전달을 위한 슬로건 선정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여행주간 (10월), '숲으로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챗봇, 국립정신건강센터 앱(마성의 토닥토닥, 정신건강 자가검진) 등을 통해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와 자가 진단을 제공하여 코로나 우울 예방을 지원한다.
-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유아·청소년 등 대상으로 '스마트폰 바른사용' 교육과 전문상담을 마련하고,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건강생활수칙 보급과 '혼술·홈술' 증가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절주 관련 온라인 이벤트를 지속 추진한다.



<카카오톡(챗봇)
정보제공>



<코로나19
건강생활수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앱>



<절주 온라인이벤트>

- 가족상담 전화(1644-6621) 등 심리·정서상담 및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등 지원도 강화한다.

□ 대상별·단계별 상담 및 심리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우울·불안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코로나 우울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한다.

- 우울·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을 지속 운영하며, 카카오톡 챗봇 등을 활용한 전국민 자가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 누구나 카카오톡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친구 등록하여 무료 자가진단 가능, 보다 심도있는 자가검진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자가진단’ 앱 활용

- 또한, 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지원을 지속 운영한다.

- 지역사회 노인 코로나 우울을 조기발견·개입하기 위해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돌봄 공백도 최소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강화, 인터넷 등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제공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문화돌봄체계 구축과 숲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 등 대응인력과 국민들에 대한 휴식·재충전도 제공·지원한다.

- 지난 6월부터 제공되는 대응인력 대상 숲치유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고, 사찰체험·치유관광·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및 원예 치유 등도 제공한다.

- 국민 안심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소비쿠폰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 종교문화 여행코스 개발 등을 추진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을 선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식·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림 등 외부활동은 풍수해 종료 이후 적극 확대 추진

- 마지막으로 확진자와 가족에게는 유선·대면상담과 함께 완치 이후에도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리상담·지원을 유지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반기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처별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심리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홍보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우울과 불안을 덜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8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45개소, ▲야영장 30개소 등 36개 분야 총 13,680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3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대구에서는 실내체육시설 9개소 등 125개소를 점검하여 손소독제 미비 등 1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경북에서는 야영장 15개소 등 99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4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9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95개반, 43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4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848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8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142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5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88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2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8.8)는 무단이탈이 확인된 사람이 없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5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2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8일) 입소 174명, 퇴소 182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4명

- < 붙임 > 1. 코로나 우울 관련 주요 현황
2.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붙임1

코로나 우울 관련 주요 현황

| 구분 | 대상군 | 주요현황 |
|----------------|---------------------------|---|
| 감염 관련 | 확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화 및 사망에 대한 두려움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환자 24명 중 70.8%가 우울·불면·긴장·공격성·환청 등 정신과적 문제 호소(경기연구원, 2020) |
| | 격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감 및 소외감,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죄책감, 낙인, 불면, 직장에서의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 |
| 계층 대상 관련 | 대응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소진 사망자 발생 등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 |
| | 정신질환자 · 장기입원 입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 대상 공공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활동(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등) 위축 및 고립 *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239개) 및 주간프로그램 운영 정신재활시설(115개) 전화상담 위주로 서비스 제공 |
| | 아동· 청소년· 학생·청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의 등교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 문제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과몰입 발생 우려 증대 고3, 대학생 등 당면한 생애주기 과제(수능 취업 등) 곤란에 따른 우울·불안 확산 |
| | 복지서비스 이용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복지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사회적 고립 가중(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
| | 주부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내 생활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가정불화 |
| 현상 | 불안 · 우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및 감염자 이외 일반 국민도 사회적 활동 감소로 인한 우울감, 무기력증 증가* * 국민의 48%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경험(경기연구원, 2020) 우울증상 심각시 스마트폰 이용 증가율이 일반인 보다 다소 높음 |
| | 중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인한 우울·불안 확산으로 알코올 의존성 경향 증가 * 코로나19 전보다 일반인의 음주율은 감소("조금+매우" 줄었다"는 응답은 54.2%)이나, 폭음자의 음주빈도는 증가("변화가 없다+늘었다"의 비율(61.9%)) 관련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위축 및 고립 |
| | 자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 우려 |

붙임2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